

차단방역으로 질병없는 농장을 구현하는 경 / 복 / 종 / 돈

- 취재 : 이 병 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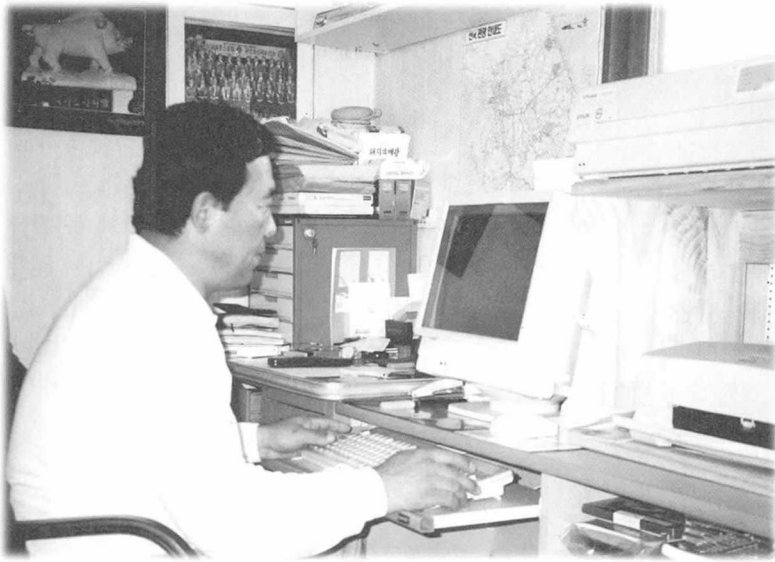
돼 지고기의 완전 수입개방이 된 시점에서 양돈농가와 협회, 그리고 업계가 하나되어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중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가 가장 주된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인공수정 도입, 올-인·올-아웃 실시, 체계적인 관리 전산화, 시설의 자동화 등 선진기술이 국내 양돈농가에 많이 보급되었으며,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돼지의 질병문제도 상당히 높은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다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질병에 노출되게 되면 그 농장에 아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농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예방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외부로부터의 질병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상당히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보지만 실제의 많은 양돈농가에서는 내부로 들어오는 질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양돈단지등 양돈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농장만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해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



▶이희득 사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장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검토한다.

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또는 지역 전체적인 차원의 방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지역에 속해있는 모든 농가가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어느 한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의 다른 농장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양돈농가들의 현실이다.

앞으로 양돈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방역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양돈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할수 있겠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여러해 동안 콜레라, 오제스키, PRRS 등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는 TGE, PED 등 전염성 질병에 의해 상당수의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만의 구제역, 독일·화란등의 콜레라 발생으로 자국의 양돈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질병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농장 개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양돈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농장의 차단방역은 농장경

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기본관리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호에는 질병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깨끗하고 청정한 돈사를 유지하고 있는 경북중돈을 찾아 보았다.

산과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경북중돈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울포리에 위치한 경북중돈(대표:이희득)은 옆으로는 포도밭이고 뒤는 산으로 되어 있으며 농장 앞은 논으로

되어있는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경북중돈 대표인 이희득 사장은 지난 79년에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농장을 시작하였으며, 현 위치로는 지난 88년에 이주하여 그 다음해 부터 중돈업을 시작하였다. 3,000평의 토지위에 돈사는 800평 규모이며 모든 200두 규모로 직원 3명이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농장사양관리 형태는 올-인, 올-아웃(ALL-IN, ALL-OUT)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임신진단은 온양의 한국양돈서비스에서 월 1회 임신진단을 해주고 있었다. 현재 농장 모돈회전율은 2.3회 전이며, PSY는 21.85두의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돈사방향은 남서방향이며 개방식 돈사인데 돈사내부와 사료저장탱크 등에 우레탄을 분사하였으며, 천정부분의 환기구는 일반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 크기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그 옆부분에 멀티팬을 환기구 1개당 6개씩을 달아 돈사내 유해가스를 외부로 빨아내고 있었으며, 돈방 바닥 밑부분 즉 스크레퍼가 놓인 부분의 가라앉은 유해가스도 옆에 멀티팬을 달아서 뽑아내므로 자연 환기와 인공환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돈사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질병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해

농장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한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경북종돈은 이에 안심하지 아니하고 질병유입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방역은 예방접종과 함께 나를 지켜주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어질 다른 사람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므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라는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는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는 이희득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필자가 농장에 방문했을 때 사료회사의 벌크차가 와서 사료를 내리고 간 뒤에 소독약을 세척기를 이용하여 사료차가 지나간 자리에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농장에서는 사료차가 농장에 왔을 때 농장 문턱에 세워놓고 소독을 한 다음 10분정도 서있은 후에 농장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한다. 농장 전체소독은 매일 1회씩 하며, 특히 분만실은 하루에 2회씩 소독을 한다.

필자도 농장에 방문했을 때 가지고 간 차를 농장 외부에 세워놓고 이희득 사장차를 타고 농장내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희득 사장의 차 바닥에는 특이하게도 신문지를 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매일 신문지를 바꿔주어서 외부업무를 보는중에 물어들일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도로에서 돼지를 수송하는 차량이 앞에서 가는 경우 아예 멈추었다가 가던가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추월을 해서 지나가는 등 어찌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또한 이희득 사장은 질병에 오염될 만한 소지가 있는 곳은 될 수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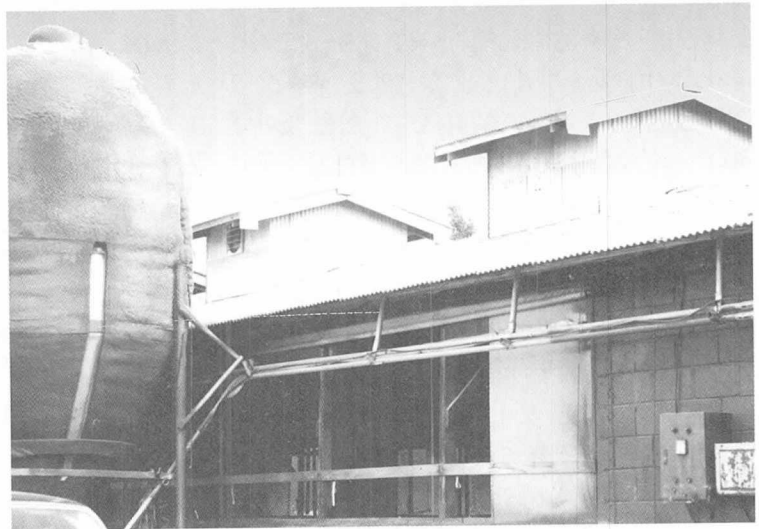
피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즉 질병에 감염될만한 어떠한 경로도 사전에 차단하여 농장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농장이 먼저 청결하게 관리되고, 예방백신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며, 청결이 선행된 후에 방역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게되면 질병예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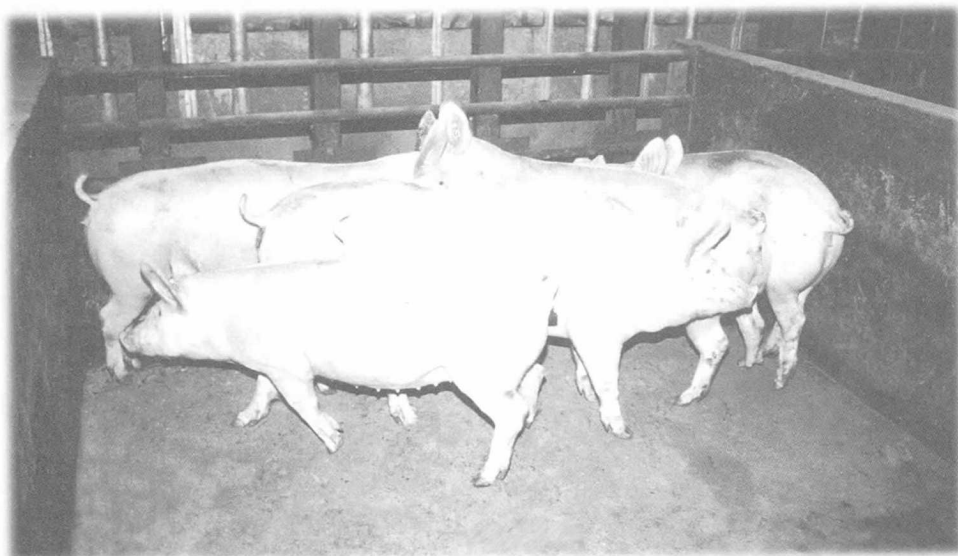
종돈을 구입해 가는 농장이 잘 돼야 종돈장도 잘 될 수 있어

경북종돈은 현재 렌드레이스, 대요크셔, 듀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한 순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돈을 정 P&C 연구소를 통해서 캐나다의 제네틱 포크사에서 1년에 2회에 걸쳐 수입을 하고 있었다.

경북종돈은 현재 국내의 9개 농장과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돈 선발시 종돈의 외모보다는 그 돼지의 위로 3대의 능력을 평가하여 강한 종돈을 선발하고 있었다. 현재 모돈이 200두 규모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경북종돈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얼마되지 않아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장



▶자돈사 전경, 지붕위의 환기구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사료저장 탱크도 우레탄을 분사하여 사료가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였다.



▶경북종돈의 후보돈

이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경북종돈은 완벽한 종돈을 공급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었다.

즉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은 종돈을 가지고 가는 농장이 잘 되어야만이 종돈장도 잘 될 수 있다며, 한번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줌으로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상호간의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거뜰히 이길 수 있을 터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은 완전수입개방에 대한 견해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를들어 설명을 해 주었는데 “비가 많이오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하늘을 틀어막을 것인가? 아니면 저수지 뚝을 비오는 가운데 높일 것인가? 이 두가지가 다 부질없는 것이며, 오로지 저수지 뚝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고, 강

하게 보강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들어 말하고 “수입농산물을 막으려고 애쓰지 말고 대처해 나갈려고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닭을 제외한 모든 가축중에서 돼지가 질병이 가장 많은데 각 농장마다 차단방역을 통하여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수입개방되었다 해도 거뜰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은 외국 양돈농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사양관리기술 향상, 경영관리 철저, 위생대책 강화, 공해대책의 확립 등 4가지를 들며 이왕 양돈을 할 것이면 더욱 적극적으로 양돈에 임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본지 캠페인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